

심형수 · 원용복 사무국장 정년 퇴임

지난 6월 29일, 명예로운 퇴임식 가져



정년퇴임식에서 개식사를 낭독하고 있는 임한중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6월 29일, 심형수 사무국장과 원용복 사무국장의 정년퇴임식을, 협회 직원,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심국장과 원국장은 1969년과 1975년에 각각 협회에 입사한 이래,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다양한 사업 개발·전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평소 직원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개식사에서 임한중 회장은 『두분이 협회 발전을 위해 쏟으셨던 애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지금의 건협이 있게 한 원동력이며, 마지막 순간

까지 보여주었던 두분의 끊임없는 연구자세를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본받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굳건한 협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두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우리 협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며 또 개인적으로는 보다 발전적이고 의미있는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또 권오중 사무국장은 송사를 통해, 『심형수 · 원용복 사무국장님이 평소 보여주셨던 협회에 대한 강한 애정을 우리 후배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회를 떠나시더라도 남아있는 직원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두사람의 정년 퇴임을 아쉬워했다.

이날 송사를 낭독한 원용복 사무국장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바쳐 일해 온 협회를 떠나자니 서운한 마음이 앞선다.』면서, 『30여년 동안 쉬임없는 발전을 해 온 우리 협회가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공익기관으로서 우뚝 선다면 우리들의 정년 퇴임이 더욱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林漢鐘 회장, 기생충과 암 관련 회의 참석 후 귀국

WHO도 방문, 관계자들과 환담



한국건강관리협회 林漢鐘 회장은 프랑스 Lyon市에서 6월 7일부터 있었던 “기생충 및 세균 감염에 의한 암 발생 위험 평가” 회의에 참석했다. Lyon시에 있는 WHO 산하의 IARC(癌 研究 國際

機構)에서 14일까지 계속된 이 회의에는 10여개국의 기생충 및 암 연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결과 간흡충과 주혈흡충, 헤리코박테리움 등이 각각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충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林회장은 이 회의를 마친 후 15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의 WHO(세계보건기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건강관리협회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후 20일 귀국했다.

불우아동 200여명 무료검진

건협 경남지부, 영신보육원생 등 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가 불우아동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5월 7일, 14일, 21일 3일에 걸쳐 영신보육원생 등 불우시설 아동 및 소년 세대 가장 200여명에 대한 무료검진 및 상담을 실시했다.

“노년기 건강생활” 강의

전북지부, 전북도 여성회관 할머니 교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는, 지난 5월 19일 전라북도 여성회관 할머니교실에서 “노년기 건강생활”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우석대 정현국 교수가 강의한 이날 강좌에는 65세 이상 할머니 100여명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